

단체교섭 난항...쓰레기 민원 '산더미'

환경미화원 "5년차 연봉 4,300만원 달라" 함평군 "현 3,200만원도 7급 공무원 수준"

함평군과 환경미화원간 단체 교섭이 수개월째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군과 환경미화원간 단체교섭은 미화원 인사 및 신규 채용시 노조와 협의할 것과 임금 인상안 등에 대한 견해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발생한 쓰레기 관련 민원이 110여 건에 달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져 올 4월 개최 예정인 '2008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화원들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4~5년차 기준 현행 3천200여

만원에서 4천300여만원으로, 10~11년차의 경우 3천400여만원에서 4천900여만원으로 34.3~44.1%의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4~5년차 미화원 연봉의 경우 행정직 7급 공무원 11~12호봉에 해당되는 액수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화원들은 또 근무 시간 준수는 물론 인사 및 신규 채용시 미화원 노조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미화원들의 일부 요구 사항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주민 김모(35·함평읍)씨는 "일부 지역에서 쓰레기가 2주 넘게 방치될

정도로 업무에는 소극적이면서 임금 인상에는 적극적이다"며 "업무에 충실한 후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함평군은 민노총 소속 미화원들이 지난해 12월 광주 지방노동청에 진정한 2005, 2006년 휴일 근무 수당과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 2천600여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형평성 차원에서 노조 미가입 미화원들에게도 동일한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

문척면 오산지구

구례군 문척면 오산지구 일원에 대단위 산림경영 모델숲이 조성된다.

구례군은 문척면 사성암 일원 563ha가 2008년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국비 등 36억원을 투입, 경관림과 소나무 숲을 비롯해 친환경 밤 생산 시설, 탐방로, 전망대, 산림 체험 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

군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조만간 지역주민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겨울철 웰빙 식품' 방울토마토 선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한 농가에서 방울토마토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방울토마토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겨울철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kwangju.co.kr

"고로쇠 마시러 오세요"

전남 곳곳 고로쇠 수액 본격 채취 126만5천ℓ ...31억 농가소득 기대

지난 16일 담양 가마골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 됐다.

올 한해 전남에서 채취할 고로쇠 수액은 전국 생산량의 20%인 126만 5천ℓ로 31억여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빠에 이롭다고 해서 일명 '골리수(得利水)'라고도 불리는 고로쇠 수액은 독특한 향과 단맛이 나며 갈증과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당분인 자당도 물보다 40배나 많아 위장병과 산후 후유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에서 채취 가능한 고로쇠 나무는 순천 조계산과 광양 백운산, 담양 추월산, 곡성 봉두산, 구례 지리산, 화순 모후산, 장성 백암산 일대 총 2만464ha에 14만3천여 그루가 분포돼 있다.

전남도는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수요량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1천16ha에 273만2천 그루를 심은 데 이어 올해도 48ha에 14만4천그루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재희종기자 chae@

심청축제 10월 2~5일 열려

곡성군 프로그램 확정

올해 곡성 심청축제가 오는 10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린다.

곡성군은 27일 제 8회 곡성 심청축제 개최일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행체험, 시력검진, 공양미 300석 모으기, 심봉사 맹인체험 등 심청축

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함께 손두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짱 페스티벌, 전곡노래자랑, 불꽃놀이와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곡성군 관계자는 "심진감 기차마와 연계하면 방문객들에게 기억할 만한 추억을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올 5대 주요 시책 펼친다

장성교육청, 장학계획·방과후학교 사업 확정

장성교육청(교육장 배병채)이 올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사업, 2대 특색교육 시책을 펼친다.

장성교육청은 지난 25일 백양관광호텔에서 '장성교육 2008 및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올해 장학계획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안을 확정했다.

5대 시책은 ▲기본학력 정착 및 창의성 계발 ▲글로벌시대의 적응능력

배양 ▲교육의 복지와 균형발전 추구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충실 ▲자율·책임의 교육공동체 구축 등이다.

장성교육청은 또 1일 30분 책임기 운동,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사이버 가정학습의 활성화 등 3대 역점사업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학교 개구기와 문화 장성의 열 계승교육 등 두 가지 특색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조오련 독도 프로젝트' 해남군, 적극 후원한다

郡 홍보대사 임명 ... 다양한 지원 강구

해남군이 독도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조오련 독도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김충식 해남 군수는 지난 25일 해남군청에서 조오련(56)씨와 만나 '독도 프로젝트' 후원문제를 협의하고, 조씨의 수영훈련을 적극 돕기로 했다.

조씨는 김 군수를 상대로 독도

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독도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고향의 따뜻한 기운으로 마지막 선수생활을 보람있게 마감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이에 대해 "나라 사랑의 대열에 해남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화답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을 검토해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해남군은 이에 따라 조씨를 해남군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독도 프로젝트'를 해남군의 기획홍보행사의 하나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씨는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독도 둘레 4km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독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조씨는 당초 2월 말부터 제주도에서 훈련을 시작해 7월에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천만원에 달하는 훈련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광원자력본부 대통령 표창 통합방위 유공 기관 선정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이시교)가 통합방위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회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통합방위 관계자 등 2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41차 통합방위 중앙회의'에서 2007년도 통합

방위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영광원자력본부는 지역 내 행정관서와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대테러업무·방사능방재 등 유사시 우발상황에 대비해 빈틈없는 통합방위 능력을 갖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2008년 전액국비교육생 모집

구분	대상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처
1	초·중·고	전액국비교육생	1월 28일 ~ 2월 15일	전남교육청
2	대학	전액국비교육생	1월 28일 ~ 2월 15일	전남교육청
3	대학	전액국비교육생	1월 28일 ~ 2월 15일	전남교육청

네시삼계정분문화고 02-525-8933, 525-8975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확장이전

세일 30%

초슬림!!

미용사 개인지도

귀하의 분위기를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문의전화 02-673-5500, 672-8800

본점 마포점 011-607-5330